

지역축제·이벤트 영향인식이 참가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중심으로

김의근* · 강숙영**

< 차례 >

1. 서론
2. 이론고찰
 - 1) 지역축제의 영향인식
 - 2)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
 - 3)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의 특징과 연구동향
3. 조사설계
4. 분석결과
5. 시사점 및 향후 과제

국문요약

지역 축제·이벤트는 문화적이고 의제적인 과거 전통축제에 기원하고 있는 특징과 함께 특정기간에 개최되는 행사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 문화상품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관광현상이다. 지역 축제·이벤트가 지역의 관광활성화는 물론 경제, 환경, 사회문화 모든 측면의 점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을 1990년대 이후 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규범적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것의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소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관광의 영향, 관광개발의 영향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역 축제·이벤트의

* 탐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 탐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 교신저자

영향에 대한 인식이 지역 축제·이벤트 참가자의 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분석대상 지역 축제·이벤트는 제주 정월대보름들불축제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예산면이나 규모면에서 가장 큰 축제이다. 분석결과 지역 축제·이벤트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6개 요인 중 부정영향을 제외한 5개 요인(지역발전, 문화교류, 지역홍보, 경제혜택, 여가확대 요인)가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6개 요인이 재방문의사나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설명력이 떨어지고 각기 2개, 3개 요인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참가자들의 재방문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주정월대보름축제의 특징 중 하나인 기복(祈福)이라는 성격과 맞물려 매년 재방문하면 어떤 특별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축제이벤트, 관광영향 인식, 축제이벤트 편익 인식, 지역 축제이벤트 참가자 만족

1. 서론

최근 지역 축제·이벤트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행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는 저하되어 지역축제가 관광객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의 이유에 대해서 지역 축제·이벤트의 내용이 계절별 꽃과 관련한 지역 축제·이벤트, 또는 각 지역의 특산물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형성되면서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 인식이다(이장주·조현상, 2000). 그 밖에 공무원의 과도한 간섭과 경험부족, 개최시기의 지나친 편중, 축제 정보의 부족, 화장실 불량,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 등이 각 지역축제의 공통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이정록·안중현, 2004).

그러므로 지역 축제·이벤트에 대한 방문객의 만족 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지역축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과 매우 밀접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요인이 이런 만족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축제·이벤트를 기획 단계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여 지역 축제·이벤트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역 축제·이벤트에 대한 영향인식은 관광으로 인해 발생한 영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져 왔다. 관광으로 인해 발생한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이 유발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관광으로 인해 발생한 영향이 '관광효과'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되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그로 인해 생산이 얼마만큼 유발되고, 고용은 얼마나 창출되는지를 계량화하는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 축제·이벤트의 영향 또는 효과를 논의해 왔다. 그래서 본 연구는 지역 축제·이벤트의 영향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변수를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경제 외적 변수를 포괄하여 지역 축제·이벤트의 영향 인식을 위한 변수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제주정월대보름들불 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축제·이벤트 참가자들의 지역 축제·이벤트 영향에 대한 인식이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목표로 하였다. 지역축제·이벤트에 만족도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의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0년에 개최된 제14회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역축제·이벤트에 대한 영향인식 요인을 도출하고 만족도, 재방문, 추천의사와 같은 사후행동과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2. 이론고찰

1) 지역축제의 영향인식

축제·이벤트(festival and special event, F&SE)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축제·이벤트는 방문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하는 지역의 문화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축제'라는 인간의 행위 자체가 문화적이고 의례적인 과거의 전통축제에 기원하고 있고, 이런 형태의 행사가 현대에 들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인의 관심을 끌고 상업적 성격을 갖게 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류정아, 2003) 둘째, 이벤트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벤트'라는 용어는 일정기간 동안 계획된 행사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이경모, 2000)이다. 이런 관점에서 축제·이벤트라는 용어는 '문화와 상품'이라는 두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홍성화 외, 2006). 그렇지만 축제(festival)와 이벤트(event)에 대한 개념규정은 학자와 학문분야, 그리고 관심영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다. 축제와 이벤트는 구성원의 참여와 관광상품화의 기능여부 등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하지만, 축제와 이벤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Janiskee, 1991).

한편 지역 축제·이벤트는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이 보유한 관광자원이자 년 중 일정한 기간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관광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 축제·이벤트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관광개발 또는 관광정책의 집행으로 나타나는 관광현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지역 축제·이벤트의 성격으로 인해 기존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관광영향이라는 연구분야와 관계를 갖게 된다(조배행·박종진, 2007). 관광영향이란 관광자원 및 시설의 물리적 개발과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접촉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관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로 '관광개발의 영향' 또는 '관광효과(tourism benefit)'와 동일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영향의 지각(perception of tourism impact)은 관광개발의 결과를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지각(고동완, 2000)의 문제이다. 관광영향은 실제적인 관광영향과 지각된 관광영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광의 영향에 대해서는 1960년대 관광의 경제적 효과만을 중요시 여겼던 단계를 지나 1970년대 국제관광의 문제가 도출되고 관광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Pizam, 1978). 그리고 1980년대 들면서 본격적으로 관광으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졌고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도 측정되었다(이후석, 1999).

지역 축제·이벤트의 효과에 대해서는 우선 관광객 유입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문화행사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대상지역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고 지역의 고용 및 소득을 증대시키는 관광산업의 구조, 관광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대상자와 관광에

의한 비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관광학 연구에서 일반적인 관광의 효과는 관광개발의 효과와 유사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런 효과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분으로는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인 경우 관광의 영향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198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축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지역축제의 영향 또는 효과에 대해서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역축제 효과와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에 대한 방향으로 대부분 진행되어 왔다(정지원·김정훈, 2005). 그밖에 사회, 문화, 환경적 영향과 관련한 변수도 지역축제의 효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인식되어져 왔다(고승익 외, 2007). 축제방문객이 지각한 축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정명희, 2003)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항목과 부정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항목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사용하여 지역축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차원의 편익, 사회적 차원의 편익, 지역이미지,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이 도출되었고, 부정적 영향요인은 환경적 영향, 사회적 비용, 혼잡이라는 변수가 도출되었다.

홍수희(2003)는 정동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관광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주민의 특성에 따라서 부분적 차이만 존재하였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후석·오민재(2006)는 이천도자기축제에 참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영향인식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관광객은 문화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다르게 인식하였지만 그 인식의 차이여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표 1>은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인식에 대한 선행연구와 지역축제의 영향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조배행·박종진(2007)이나 함석중·박선희(2009)의 연구는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요인을 크게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관광의 영향에 대한 인식의 측정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구성하는 항목 모두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래 조문식·최해수(2004)의 연구나 부숙진(2009)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조문식·최해수(2004)는 지역축제의 영향에 대해서 관광 연관효과, 경제적 부담효과, 지역사회 개선 효과와 같이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환경적 영향이나 사회문화적 영향을 포괄하여 측정하는 관광영향과 관련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한정적인 차원에서 지역축제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

지역 축제·이벤트에 대한 만족은 관광학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던 고객만족 개념에 근거해서 접근되고 있다. 이는 지역 축제·이벤트가 문화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라는 개념에 입각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계획된 행사라는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한 문화상품의 입장에서 관광마케팅에서 많이 적용되어 온 고객만족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관광마케팅연구에서 기본적으로 만족이란 사전기대 수준이 상품구매 후에도 감소하지 않고 기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편익을 얻었을 때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소비경험에 대해 사전에 가지고 있던 감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행한 종합적인 심리상태라고 인정되고 이다(Oliver, 1981). 그래서 지역 축제·이벤트에 대한 방문객 만족도는 방

문객이 사전에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축제를 경험하는 동안 스스로의 체험에 대하여 개인이 내리는 심리적, 감정적인 전반적인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정록·안종현, 2004).

〈표 1〉 축제영향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지역 축제·이벤트의 효과 요소	비 고
조배행·박종진 (2007)	지역경제요인: 주민소득 증가, 일자리 증가, 경제발전, 생활 수준 향상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
	자연경관 향상: 지역기반시설 향상, 휴식여건 증가, 문화여건 향상, 거리외관 및 경관 정비	
	지역사회 향상: 이미지 향상,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 강화	
	환경오염 증가: 자연환경 훼손, 환경오염, 경관훼손	
	생활불편 증가: 사생활/일상생활 방해, 교통체증증가	
함석중·박선희 (2009)	경제적 긍정영향: 경제활성화, 소득증대, 조세수입증대, 고용 창출, 기반시설 확충	
	경제적 부정영향: 생활비용증가, 과소비유발, 기반시설 과부하, 지역자본 외부유출	
	환경적 긍정영향: 지역자원보존, 이미지 개선, 지역의 외관형상 필요성 증대	
	환경적 부정영향: 지역자연생태 파괴, 여가공간 혼잡, 수질·토양·대기오염 증가, 쓰레기/소음증가	
	사회문화적 긍정영향: 생활질 향상, 레크레이션 기회 확대, 관광객-주민간 문화교류, 지역정체성 보존, 전통문화 발굴, 다양한 문화활동 증진	
사회문화적 부정영향: 교통사고·체증 증가, 범죄발생 증가, 고유문화파괴 및 모조문화서행, 갈등유발		
조문식·최해수 (2004)	관광연관효과: 축제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기여, 지역발전 투자기회 증대, 지역주민 취역기회 증대, 관련산업 발전, 지역발전 가속	지역 축제· 이벤트의 영향인식
	경제적 부담효과: 지역물가 상승, 지역주민 소비성향 증대, 세금부담 증대	
	지역사회 개선효과: 지역내 호텔 및 고급숙박시설 증대, 지역 내 치안 개선	
부숙진(2009)	경제적/환경적/문화적/사회적 요인	

자료: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만족은 관광지의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대-불일치 이론(Oliver)은 소비경험이 사전의 기대수준보다 높게 나타나면 재구매를 하는 반면에 실제 성과가 기대수준 보다 낮게 나타나면 매우 불만족하여 다음 구매에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훈과 Kerstetter(1997)는 지역예술축제에 참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사이의 참여동기, 축제평가,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동기는 순위차이가 있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 축제 만족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만족수준을 비교했을 때 관광객들이 지역주민보다 더 높은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두 집단의 만족수준은 모두 높은 것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단계부터 시장 분석을 하거나 행사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축제참가집단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손해경·손대현, 2008).

반면 정강환·노용호(2004)는 하동야생차 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국내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으로 분류하여 축제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지역주민이 국내 관광객 보다 더 높은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우(1998)는 만족은 관광체험의 후속단계를 대표하는 심리적 개념으로서 후속변수인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와 구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축제·이벤트에서의 만족도는 지역 축제·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인지하는 개인의 지각의 정도로도 평가될 수 있고, 방문객을 지역주민과 관광객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손해경·손대현, 2008; 장양례·김혜영, 2007). 이렇게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지역축제 만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두 집단의 만족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여 그 만족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이훈 & Deborah(1997)은 지역예술축제에 참여한 지역주민 참가자와 관광객 사이의 참가동기, 축제평가 및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지역주민과 관광객 사이에 축제만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장양례·김혜영(2007)인 경우 거북선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외지 방문객들의 축제참여 동기와 만족도 및 충성도를 비교 연구한 결과, 지역주민과 외지 방문객의 축제 만족도에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손해경·손대현(2008)은 문경 한국전통 찻사발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만족도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이 두 집단 간에는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축제·이벤트에 대한 선행연구의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만족도 차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의 경향을 볼 때, 이들 두 집단의 지역 축제·이벤트 만족 수준은 대체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지만,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반드시 이들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만일 두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인한 것인지 충분히 해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도 이런 귀납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 축제·이벤트 만족에 있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3)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의 특징과 연구동향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는 가축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매년 겨울철에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들불놓기(방애)와 제주 고유의 전통민속을 현대적 감각에 맞

게 재현하여 관광상품화한 축제이다. 매년 정월대보름날을 앞두고 개최하는 이 행사는 1997년에 처음 개최하여 2010년 1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는 오름 하나를 다 태우는 규모 있는 축제로, 그리고 불을 토해내는 활화산 같은 웅장하고 위엄 있는 불의 향연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불(火)과 삼다(三多)의 향토적 자원을 극대화하여 축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된다.

정월대보름들불축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봉성리 산59-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새별오름에서 개최된다. 새별오름은 표고 519.3m, 지상 높이 119m, 면적 522,216m²의 규모를 지닌 오름으로 저녁하늘에 셋별과 같이 빛난다 하여 신성악(晨星岳)이라 표기하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새별오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새별오름은 고려시대 최영장군이 목호(牧胡)를 무찌른 호국의 전적지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2001년과 2002년에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었고, 2004년과 2005년에는 예비축제로, 2006년과 2007년에는 유망축제로 선정되었다.¹⁾ 특히,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북제주군과 통합을 이룬 제주시가 북제주군을 대신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축제의 행사구성을 보면,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프로그램의 특징은 내용적 요소로서의 기복과 형식적 요소로서의 오름 불놓기라는 스펙터클(spectacle)로 구분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년 전국 25개 축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지역축제 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고 있다.

〈표 2〉 2010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주요 프로그램

<p>첫째날 2월 26일 주요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년기원제, 도민대통합 줄다리기, 풍물 길트기 · 성화점화, 개막선언, 달집만들기 경연 · 소원기원 옛불 대행진, 달집태우기 · 태고의 불꽃쇼(조명 및 레이저쇼, 연화연출) <p>둘째날 2월 27일 주요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상마예공연 · 도민대통합 줄다리기, 녑등배기 경연, 읍면동 음악잔치 · 행복기원의 불꽃쇼(조명, 레이저쇼, 연화) <p>셋째날 2월 28일 주요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뚝돌들기 · 국내교류도시 축하공연, 국제교류도시 축하공연 · 대형달집점화, 오름정상 화산분출쇼, 오름불놀이, 귀불놀이 체험 · 오름정상 연화연출, 조명 및 레이저쇼, 피날레 장식(풍물놀이, 민요한마당, 강강술래) 등 <p>부대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별오름-이달오름 동반체험, 축제사진 전국콘테스트, 세계이색연날리기 · 가훈썰주기, 잔디썰매장, 사랑의 역마차, 세계다문화 체험코너 등
--

자료: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홈페이지(<http://www.buriburi.go.kr>)

첫째 내용요소로서 기복은 한민족 고유 행사인 정월대보름 기복(祈福) 행사에 근거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의 무사안녕과 풍년기원을 바라는 것이다. 축제의 기원이 과거에서부터 행해져 오던 의례적 행사에 있다는 점을 볼 때 정월대보름들불놀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불타는 오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현상은 원초적인 인간의 주술적 행동 중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형식요소로서 들불놀이 스펙터클은 대보름달처럼 밝은 불을 지

상에 밝히는 점화 행사로서 모든 점화가 끝나면 새별오름 전체가 마치 하나의 '활화산'처럼 역동적인 불의 장관을 연출하게 된다. 이런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역동적인 장면은 참가하는 모든 국내·외 관람객, 제주도민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자극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매우 강렬한 자극이 앞서 설명한 기복이라는 내용요소로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들불놓기가 진행되는 날 부대행사로는 전통놀이 중 하나인 불강통돌리기가 진행되며, 3일 간 행사기간 동안 사진전시회, 가훈써주기, 잔디밭매장 등과 같이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전통놀이 등의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한편 이와 같이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대한 비판도 지역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다. 교통통제나 행사장 소음에 대한 문제(제주일보, 2003년 3월2일), 많은 참가자들로 인한 셔틀 버스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차량통제 미숙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 현상이 나타난 문제(제주관광신문, 2010년 3월 1일; 한라일보 2010년 3월 4일), 축제장 내 불법소각이나 분리수거함 설치 미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관리가 미흡한 문제(제주환경운동연합, 2004년 2월 4일), 2009년 경남 창령군 화왕산 억새태우기축제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영향으로 들불놓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여론(연합뉴스 2009년 2월 10일)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대한 부정적 문제제기들은 이 축제·이벤트가 제주를 대표하는 가장 규모가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관광의 영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긍정적인 영향이나 효과만을 보아서는 안 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서도 측정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대해서 관광분야에서 연구된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문성종 외(2007)는 제주들불축제 평가속성이 만족과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가 제주지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행사라는 점에서 이 축제·이벤트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행사와 관련한 개선안의 하나로 입장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어떤 축제 의 요소가 입장료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들불축제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속성은 ‘흥미 및 탈출요인’, ‘상품요인’, ‘가격 및 환경요인’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들불축제의 재정적인 전략으로 입장료를 고려할 경우 흥미나 일상탈출과 같은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획과 행사 내용 전반을 구성하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런 들불축제 평가요인들의 수준을 개선시킨다면 들불축제의 만족도 수준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이는 곧 들불축제가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장성수 외(2008)의 연구자들은 2005년과 2006년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축제방문객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거주지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관광객의 만족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조사설계

본 연구는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고찰에서 살펴본 관광과 지역축제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대

상 축제인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의 영향인식을 위한 설문문항을 설계하였다. 설문문항은 22개 항목으로 설계하였으며, 경제적 영향인식, 사회적 영향인식, 문화적 영향인식, 환경적 영향인식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와는 별도로 부정적 영향인식을 질문하는 문항(환경문제 심화, 교통혼잡 야기, 환경파괴, 치안악화)을 4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다른 영향인식 항목과 어떤 관계가 있고, 축제·이벤트 만족 및 기타 변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문항의 형태는 지역 축제·이벤트의 영향인식에 대한 문항, 만족도, 재방문 및 추천의사를 질문하는 문항은 리커트식 5점척도를 이용하였고, 그 밖에 응답자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은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제14회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참여한 제주 지역 주민 및 그 시기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다. 이 행사의 주관기관인 제주시의 참여인원 목표계획은 올해 35만명(국내외관광객, 자매결연도시, 기관, 단체, 학생, 도민 등)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을 볼 때(제주투데이 2010년 2월 25일),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므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였다. 표본의 수는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350부를 배포하였고 미회수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300부를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유효표본 채택률은 85.7%). 설문조사는 사전에 설문의 목적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6명의 설문조사원이 축제가 개최된 2010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 동안 행사장이 있는 새별오름 일대에서 실시되었다. 통계분석은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분석으로는 기술통계와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들은 아래 표와 같은 인구통계적 특징을 나타냈다. 남성은 전체 응답자의 52.3%(157명), 여성은 47.7%(143명)였다. 연령은 20대가 19.7%(59명), 30대가 21.8%(65명),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인 33.0%(99명), 50대 이상이 25.7%(77명)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미혼자는 31.7%(95명), 기혼자는 68.3%(205명)였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이 22.0%(66명), 100만원대가 8.3%(25명), 200만원대가 39.7%(119명), 300만원대가 20.3%(61명), 400만원대 이상이 9.7%(29명)이었다. 직업의 분포는 관리/사무직이 9.0%(29명), 개인사업이 22.3%(67명), 교사/공무원이 13.3%(40명), 판매/서비스직이 18.7%(56명), 전문직이 7.0%(21명), 학생이 16.0%(48명), 주부가 8.3%(25명), 기타는 5.3%(16명)으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성별	남	157(52.3%)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66(22.0%)	
	여	143(47.7%)		100-199만원	25(8.3%)	
연령	20대	59(19.7%)		200-299만원	119(39.7%)	
	30대	65(21.8%)		300-399만원	61(20.3%)	
	40대	99(33.0%)		400만원 이상	29(9.7%)	
	50대	72(24.0%)		직업	관리/사무직	29(9.0%)
	60대 이상	5(1.7%)			개인사업	67(22.3%)
	결혼	미혼			95(31.7%)	교사/공무원
기혼		205(68.3%)			판매/서비스직	56(18.7%)

<표 계속>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직업	전문직	21(7.0)	유형	관광객	137(49.0%)
	학생	48(16.0%)		제주도민	153(51.0%)
	주부	25(8.3%)	방문 경험	처음	132(44.0%)
	기타	16(5.3%)		경험 있음	168(56.0%)
동반자 유형	가족	131(43.7%)	축제 정보	주위사람	136(45.3%)
	친구	76(25.3%)		방송신문	111(37.0%)
	연인	22(7.3%)		인터넷	35(11.7%)
	동호회/단체	43(14.3%)		기타	18(6.0%)
	직장동료	24(8.0%)			
	기타	4(1.3%)			

응답자의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방문과 관련한 특징에서 동반자 유형으로는 가족이 43.7%(13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구로 25.3%(76명)이었고, 동호회/단체(14.3%, 43명), 직장동료(8.0%, 24명), 연인(7.3%, 22명), 기타(1.3%, 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유형으로는 관광객이 49%(137명)였고, 제주도민은 51%(153명)이었다.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대한 방문경험을 질문한 결과 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6%(168명)이었고, 올해 행사에 처음 참여한 응답자는 49%(132명)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어디서 정보를 획득했는가를 질문한 결과 주위 사람에게서 관련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이 45.3%(136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방송 및 신문으로서 37%(111명)이었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은 경우는 11.7%(35명)로 나타났다.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의 영향인식 평균

아래 표는 정월대보름들불축제의 영향인식에 대한 22개 질문항목의

평균을 정리한 것이다. 22개 영향인식 항목 중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낸 것은 'x14. 교통혼잡야기(3.9367)'항목이다. 이는 본 연구가 지역 축제·이벤트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계한 부정적 영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긍정적인 영향인식 항목에 비해서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만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본 연구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가장 높은 영향인식 항목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것이지만 나머지 10순위까지의 항목들은 'x16.지역홍보(3.7567), x7.지역 이미지 강화(3.6200), x17.여가활동 확대(3.5433), x11.지역 자긍심 강화(3.5367), x3.주민 관광객 상호이해(3.5100), x2.지역문화 보전(3.5100), x19.전통 문화 이해, x20.자연환경과 조화'와 같이 대부분 지역의 이미지와 문화를 진흥시킨다는 측면의 응답들이 많았다.

'x13.환경문제 심화' 항목도 아홉 번째로 높은 평균인식(3.4967)을 나타낸 것으로 볼 때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대한 영향인식을 나타낸 항목은 'x5.일자리 창출(3.0467)'로 나타났다. 이는 이 축제·이벤트가 경제적 영향중에서 고용창출을 유도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고용불안정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밖에 22개 항목 중에서 평균 인식 수준이 낮은 하위 5개 항목은 고용창출을 포함하여 'x15.치안악화(3.0933), x22.환경파괴(3.2533), x4.삶의 질 향상(3.2733), x9.지역 인프라 향상(3.2967)'과 같이 나타났다.

〈표 4〉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영향인식 평균

문항	평균	순위
x1.지역사회 응집력	3.4667	12
x2.지역문화 보전	3.5100	7
x3.주민 관광객 상호이해	3.5100	6
x4.삶의 질 향상	3.2733	19
x5.일자리 창출	3.0467	22
x6.여가기회 창출	3.3733	14
x7.지역 이미지 강화	3.6200	3
x8.주민단체 수익 증가	3.4100	13
x9.지역 인프라 향상	3.2967	18
x10.지역 문화발전	3.4800	11
x11.지역 자긍심 강화	3.5367	5
x12.주민 교육 제공	3.3100	16
x13.환경문제 심화	3.4967	9
x14.교통혼잡 야기	3.9367	1
x15.치안악화	3.0933	21
x16.지역홍보	3.7567	2
x17.여가활동 확대	3.5433	4
x18.교육적 효과	3.3467	15
x19.전통문화 이해	3.5000	8
x20.자연환경과 조화	3.4967	10
x21.자연중요성 인식제고	3.3067	17
x22.환경파괴	3.2533	20

3)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영향인식 항목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결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설계한 지역 축제·이벤트 영향 인식에 대한 측정 척도 22개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사회과학에서 설문문항의 개념적 타당성과 구성적 타당

성을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차원에서 설문문항의 정보를 축약하는 요인을 도출하는데 이용하는 분석으로서, 연구설계에서 설계한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석기법이다. 요인추출모델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아이젠 값 1.0 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직각회전 중 하나인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하였다. 수렴에 대한 최대 반복계산 수는 요인추출에 대하여 25회 최대반복계산하여 수행하였다. 요인추출 후 공통성(communality) 0.4 기준으로 최종요인은 6개로 추출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설계한 22개 항목 모두가 요인화된 것으로 선행 연구 검토로 설계한 본 연구의 설문 구성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모형이 유의미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본적합도(KMO)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KMO값은 0.832로 사회과학에서 요구하는 0.6 이상의 기준을 상회하는 좋은 결과치로 나타났다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 역시 2051.691($p < .000$)로서 유의하게 나타나 자료를 단순화시켜 요인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제1요인은 'x20.자연환경과 조화, x21.자연중요성 인식제고, x7.지역 이미지 강화, x11.지역 자긍심 강화, x9.지역 인프라 향상'과 같은 5개 문항이 묶여 '지역발전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은 'x10.지역 문화발전, x18.교육적 효과, x19.전통문화 이해, x12.주민 교육 제공'과 같은 4개 문항이 묶였고 '문화교육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 역시 '지역사회 응집력, x3.주민 관광객 상호이해, x2.지역문화 보전, x16.지역홍보'와 같은 4개 문항이 묶여서 '지역홍보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4요인은 'x5.일자리 창출, x4.삶의 질 향상, x8.주민단체 수익 증가' 같은 항목이 묶여 '경제혜택 요인'으로, 제5요인은 'x13.환경문제 심화, x14.교통혼잡 야기, x22.환경파괴, x15.치안악화'같이 부정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이 묶여서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표 5〉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영향인식 문항의 타당성신뢰성 검증

영향 인식 문항	성 분						공통성
	Factor1 지역 발전	Factor2 문화 교육	Factor3 지역 홍보	Factor4 경제 혜택	Factor5 부정적 영향	Factor6 여가 확대	
x20.자연환경과 조화	.724	.114	.128	.167	.092	.064	.594
x21.자연중요성 인식제고	.657	.214	.001	.192	.299	.067	.608
x7.지역 이미지 강화	.571	.029	.353	.013	-.041	.214	.499
x11.지역 자긍심 강화	.532	.355	.253	-.031	-.206	-.003	.516
x9.지역 인프라 향상	.504	.497	-.004	.363	.115	-.113	.659
x10.지역 문화발전	.219	.664	.250	-.064	-.032	.077	.563
x18.교육적 효과	-.001	.654	.106	.273	.176	.207	.587
x19.전통문화 이해	.289	.609	.164	.162	.054	-.011	.510
x12.주민 교육 제공	.144	.591	.064	.224	-.011	.384	.572
x1.지역사회 응집력	.090	.188	.712	.111	.025	.164	.590
x3.주민 관광객 상호이해	.079	-.051	.703	.326	.084	.127	.632
x2.지역문화 보전	.139	.348	.609	.103	-.040	.048	.527
x16.지역홍보	.323	.243	.538	-.204	-.159	.085	.527
x5.일자리 창출	.175	.176	.120	.746	.107	.173	.673
x4.삶의 질 향상	.138	.183	.381	.687	.053	-.016	.673
x8.주민단체 수익 증가	.494	.233	.000	.507	.095	-.075	.569
x13.환경문제 심화	-.098	.233	.059	.075	.831	-.122	.779
x14.교통혼잡 야기	.209	-.132	.251	-.357	.660	-.092	.695
x22.환경파괴	.109	-.048	-.131	.330	.640	.051	.553
x15.치안악화	.119	.065	-.237	.117	.530	.436	.559
x17.여가활동 확대	-.133	.296	.285	-.124	.015	.699	.690
x6.여가기회 창출	.309	.047	.248	.202	-.105	.688	.684
아이겐 값	5.838	2.313	1.502	1.380	1.190	1.036	
누적 설명분산(%)	26.539	37.052	43.880	50.151	55.560	60.271	-
Cronbach's alpha	.739	.709	.711	.712	.632	.549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83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2051.691(p<.000)

마지막으로 제6요인은 'x17. 여가활동 확대, x6.여가기회 창출'과 같은 항목이 묶여 '여가확대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6개 요인의 총분산설명력은 60.271%로서 사회과학에서 실시하는 요인분석이 해당 전체 개념의 60% 이상을 설명하면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제시하는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분석 결과로 도출된 각 요인별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응답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ah를 이용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했다. 추출된 6개 요인 중 5개 요인의 신뢰성은 사회과학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0.6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문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제6요인으로 도출된 '여가확대 요인'의 신뢰성 계수가 0.6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지만, 변수의 수가 2개이고 아직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이에 관련한 검증된 척도를 제안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4)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영향인식이 참가자 만족, 재방문,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대한 영향인식이 참가자들의 만족과 재방문, 추천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으로서 종속변수의 변동이 독립변수와 연관되어 있는 정도로서 선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편회귀도면을 이용하였고, 정규성 검토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잔차를 정규분포와 비교하는 정규확률도면(p-p 도표)이용하였다. 오차의 등분산성과 오차항의 독립성은 잔치의 도면을 통해 검토하였다. 3회의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을 살펴본 결과, 기본가정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다중공선성 평가는 공차한계와 VIF(분산확대인자) 값을 각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살펴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

<표 6>은 다중회귀분석 결과치이다. 6개의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 제5요인인 부정적 영향요인을 제외한 5개 요인이 모두 종속변수인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5개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계수의 크기로 판단한 수 있는데 문화교류 요인이 0.197의 계수를, 여가확대요인이 0.196의 계수를 나타내면서 다른 요인들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지역발전(0.167), 지역홍보(0.153), 경제혜택(0.099)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F=28.130$, $\text{sig}=.000$),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된 복수의 독립변수들로 인해 수정된 R-square 값은 0.353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의 변동이 종속변수를 35.3%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참가자들은 해당 축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 축제 · 이벤트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영향인식 항목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를 볼 때, 교통문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불만이 다른 영향인식 항목보다 매우 높은 수치임을 감안할 때, 이런 부정적 영향인식이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

2) 공차한계는 0.1 이하인 경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분산확대인자는 10.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한다(정충영 · 최이규, 2009).

지 않도록 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기획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객과의 문화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과 지역주민의 여가회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전반적인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을 볼 때,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동시에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한다면 행사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표 6〉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영향인식이 참가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 축제만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SE	베타			공차한계	VF
(상수)	.139	.273		.510	.610		
지역발전	.184	.070	.167	2.626	.009***	.532	1.878
문화교류	.216	.069	.197	3.145	.002***	.552	1.812
지역홍보	.173	.065	.153	2.672	.008***	.657	1.523
경제혜택	.089	.054	.098	1.660	.098*	.627	1.595
부정영향	.009	.049	.009	.183	.855	.929	1.076
여가확대	.204	.056	.196	3.643	.000*	.751	1.331

R-square=0.365, 수정된 R-square=0.353, F=28.130(p=.000)

*:p<0.1, **:p<0.05, ***:p<0.01

두 번째 다중회귀분석은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영향인식이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이루어 졌다. 분석결과 투입된 6개의 변수 중에서 2개 독립변수(문화교류 요인, 경제혜택 요인)만이 종속변수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때의 회귀방정식은 $F=11.050(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수정된 R-square도 0.168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재방문의사를 16.9% 설명해 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제주정월대보름축제의 재방문 의사에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서로 교류하면서 즐기는 축제의 문화교류 체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참가한 단체들의 수익이 증가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다시 방문을 결정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역발전 요인이나 지역홍보 요인, 여가확대 요인 등이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석은 앞선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행사에 대한 만족여부에는 이들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만족 자체가 차후년도 재방문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축제에 대한 만족이 고객만족 개념에서 왔다는 선행연구를 볼 때, 본 연구의 이런 결과는 축제에 만족한 참가자들은 재방문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축제 개별적 특징 및 상황적 변수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고, 만일 충분히 만족하지 않은 참가자들인 경우 쉽게 재방문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영향인식이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축제재방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SE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1.187	.398		2.980	.003***		
지역발전	.126	.102	.089	1.237	.217	.532	1.878
문화교류	.275	.100	.194	2.735	.007***	.552	1.812
지역홍보	.146	.094	.101	1.544	.124	.657	1.523
경제혜택	.204	.079	.173	2.590	.010***	.627	1.595
부정영향	-.058	.072	-.044	-.801	.424	.929	1.076
여가확대	-.016	.082	-.012	-.194	.847	.751	1.331

R-square=0.185, 수정된 R-square=0.168, F=7.759(p=.000)

*:p<0.1, **:p<0.05, ***:p<0.01

세 번째 다중회귀분석은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영향인식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분석결과 투입된 6개의 변수 중에서 3개 독립변수(문화교류 요인, 지역홍보 요인, 경제혜택 요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종속변수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때의 회귀방정식은 $F=7.759$ ($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수정된 R-square도 0.119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재방문의사를 11.9% 설명해 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제주정월대보름축제의 추천의사 역시 만족에 5개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문화교류 요인'이나 '지역발전 요인', '경제혜택 요인'이 작용했을 때 이 축제·이벤트에 다시 방문하도록 하는 추천의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축제 만족이 축제 재방문과 추천의사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이론을 참고할 때, 결국 충분히 축제에 만족한 참가자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해당 축제에 다시 방문하도록 하는 추천의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영향인식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추천의사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SE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1.802	.393		4.581	.000***		
지역발전	.180	.101	.133	1.782	.076*	.532	1.878
문화교류	.236	.099	.173	2.375	.018**	.552	1.812
지역홍보	.043	.093	.031	.462	.644	.657	1.523
경제혜택	.132	.078	.116	1.698	.091*	.627	1.595
부정영향	-.099	.071	-.078	-1.387	.167	.929	1.076
여가확대	.025	.081	.020	.314	.754	.751	1.331

R-squar=0.137, 수정된 R-squar=0.119, F=11.050(p=.000)

*:p<0.1, **:p<0.05, ***:p<0.01

5) 주민-관광객간 방문경험에 따른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영향 인식 차이

앞서 이론고찰에서는 축제 참가자 집단 중 주민집단과 관광객 집단이 축제에 대한 영향인식이나 만족에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이훈 & Deborah, 1997; 장양례·김혜영, 2007)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연구(손해경·손대현, 2008)가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주민집단과 관광객 집단, 처음 축제에 방문한 집단과 이전에 방문을 경험한 집단 간에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대한 영향인식과 만족도, 재방문 의사, 추천의사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관광객과 제주도민에 따라서 축제 영향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6개 영향인식 요인 중에서 2개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혜택 요인에 있어서는 제주도민이 3.3573으로 관광객(3.1247) 보다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고, 지역홍보 요인에 있어서는 관광객이 3.6241로 지역주민(3.5) 보다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대한 인식이 관광객들은 제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인식하는 반면에, 제주지역주민들은 이 행사로 인해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단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자칫 지역주민이 축제·이벤트를 과도하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장으로 인식할 경우 관광객들과의 인식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 대한 제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9〉 관광객과 제주도민에 따른 축제 영향인식 차이

축제편의 인식	구 분	N	평 균	F	sig
지역발전	관광객	147	3.4381	.124	.725
	제주도민	153	3.4641		
문화교류	관광객	147	3.3656	1.357	.245
	제주도민	153	3.4510		
지역홍보	관광객	147	3.6241	3.029	.083*
	제주도민	153	3.5000		
경제혜택	관광객	147	3.1247	7.143	.008***
	제주도민	153	3.3573		
부정적 영향	관광객	147	3.4048	1.003	.317
	제주도민	153	3.4837		
여가확대	관광객	147	3.4796	.292	.590
	제주도민	153	3.4379		

*p<0.1, **p<0.05, ***p<0.01

그리고 관광객과 제주도민에 따라서 정월대보름축제의 만족, 재방문 의사, 추천의사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앞서 이론고찰에서 두 집단 간 축제 만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한 연구결과(손해경·손대현, 2008)와 같이 두 집단에는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대한 만족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재방문 의사에서는 제주도민이 3.6405로 관광객들(3.3197)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재방문 의사 값을 나타내고 있었고, 추천의사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10〉 관광객과 제주도민에 따른 만족, 재방문 의사, 추천의사 인식 차이

만족, 재방문, 추천의사 인식	구 분	N	평 균	F	sig
만족	관광객	147	3.1088	1.174	.280
	제주도민	153	3.1961		
재방문 의사	관광객	147	3.3197	9.859	.002
	제주도민	153	3.6405		
추천의사	관광객	147	3.5170	.511	.475
	제주도민	153	3.5882		

*:p<0.1, **:p<0.05, ***:p<0.01

한편,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참여했던 경험여부에 따라서 축제의 영향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6개 축제 영향인식 요인 중 1개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혜택 요인'에서는 방문경험이 있는 집단이 3.3075로 처음 방문한 집단(3.1616)보다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표 11〉 정월대보름들불축제 경험 여부에 따른 축제 영향인식 차이

축제편의 인식	구 분	N	평 균	F	sig
지역발전	처음방문	132	3.4348	.158	.692
	방문경험 있음	168	3.4643		
문화교류	처음방문	132	3.3485	2.163	.142
	방문경험 있음	168	3.4568		
지역홍보	처음방문	132	3.5587	.003	.958
	방문경험 있음	168	3.5625		
경제혜택	처음방문	132	3.1616	2.732	.099*
	방문경험 있음	168	3.3075		
부정적 영향	처음방문	132	3.3883	1.635	.202
	방문경험 있음	168	3.4896		
여가확대	처음방문	132	3.4280	.485	.487
	방문경험 있음	168	3.4821		

*:p<0.1, **:p<0.05, ***:p<0.01

이 결과는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많이 참여할수록 경제적 혜택, 즉,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문화교류나 지역발전, 지역홍보, 여가확대 요인인 경우 방문경험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월대보름들불축제의 경험여부에 따라서 축제에 대한 만족, 재방문 의사, 추천의사가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 3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월대보름들불축제 만족에 있어서는 방문경험이 있는 집단이 3.2464로서 처음 방문한 집단(3.0349) 보다 높았고, 재방문 의사도 방문경험이 있는 집단이 3.6131로 처음 방문한 집단(3.3182) 보다 높게 인식했으며, 추천의사에 있어서는 방문경험이 있는 집단이 3.6429로 처음 방문한 집단(3.43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정월대보름들불축제는 방문경험이 많아질수록 만족과 재방문,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만족, 재방문, 추천의사를 통한 방문유도 등은 이 행사의 발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다시 방문한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거나, 다시 방문을 약속할 경우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이런 재방문 요소들이 축제의 주요 내용적 특징인 기복(祈福)이라는 요소와 연계시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5회 이상, 10회 이상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참가해서 기복을 할 경우 무사안녕과 함께 참가자들이 기원하는 특별한 어떤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요소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표 12〉 축제 경험 여부에 따른 만족, 재방문 의사, 추천의사 인식 차이

만족, 재방문, 추천의사 인식	구 분	N	평 균	F	sig
만족	처음방문	132	3.0348	6.939	.009***
	방문경험 있음	168	3.2464		
재방문 의사	처음방문	132	3.3182	8.170	.005***
	방문경험 있음	168	3.6131		
추천의사	처음방문	132	3.4394	4.162	.042**
	방문경험 있음	168	3.6429		

*p<0.1, **p<0.05, ***p<0.01

5.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개최고 있는 지역 축제·이벤트가 점차 차별성이 떨어지면서 참가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관광마케팅적 측면에서 많이 연구되어온 고객만족 개념을 도입하여 축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이는 축제가 문화와 상품이라는 두 가지 큰 개념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관광상품 차원에서 어떻게 그것의 이용객들에게 보다 큰 만족을 전달할 수 있고, 어떤 요인이 그런 축제 참가 만족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한다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대표축제인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대상으로 참가자들의 지역축제 이벤트 영향인식이 만족과 재방문, 추천의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집단(관광객과 지역주민, 처음방문 집단과 방문경험집단)에 따라서 그런 영향인식과 만족, 재방문, 추천의

사를 다르게 인식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론연구에서는 지역축제 영향인식을 관광 및 관광개발의 영향인식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더불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관광 및 관광개발의 영향인식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함께 균형있게 측정하는 반면, 지역 축제에 대한 영향인식은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측정되고 있고, 측정항목 구성도 포괄적인 지역 축제·이벤트의 영향을 담아 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부정적 변수를 포함하여 설계하였다. 요인분석으로 그 영향인식 요인을 추출한 결과 '지역발전요인, 문화교육요인, 지역홍보요인, 경제혜택요인, 여가확대요인'과 같은 긍정적 요인이 도출된 반면에,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환경문제 및 치안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부정적 영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요인도 도출되었다.

그리고 도출된 6개 요인 중 부정적 영향요인을 제외한 5개 요인은 모두 축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재방문 의사나 추천의사에는 각각 2개와 3개의 요인만 영향을 미치고 이었다. 이는 정월대보름들불축제의 만족수준이 재방문이나 추천의사에 영향을 줄 만큼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잘 관리하여 이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을 높여야 재방문 및 추천의사도 높아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런 재방문 및 추천의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에 관광객을 포함한 재방문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재방문객이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서 무사안녕 등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올해 2010년에 치러진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한정하여 참가자들이 그 축제·이벤트의 영향요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만족, 재방문, 추천의사와 같은 세 가지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분석한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의 영향요인이 세 가지 변수(만족, 재방문, 추천의사)에 주는 영향관계는 올해 행사에 국한해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가 국내 및 국외 다른 지역축제·이벤트의 사례에서도 많이 검증되고 있지만, 일반화 과정을 거쳐 이론적 체계를 갖추는 데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인 경우 앞으로 종단적으로 4-5년 단위로 동일한 변수로 분석을 시도해 보는 실증적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이들 관계를 설명해 나갈 수 있는 연구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축제·이벤트 참가자의 영향인식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 전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한계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축제·이벤트는 지역의 문화적 의례행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관광상품화 되어서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집단 간에 지역축제·이벤트의 영향을 인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의 '지역발전, 문화교류, 부정적 영향, 여가확대'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는 이 두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 요인을 예를 들면, 이 요인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인 수준이 높아야 하지만, 그 수준

이 통계적의미를 갖지 않는 수준에서 조금 높은 정도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주관하는 제주시인 경우 이 행사가 지역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지역주민의 여가기회 확대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보다 강하게 홍보해야 한다.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는 인식에서 제주도민의 인식이 관광객들보다 높은 것은 실제 현상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기존에 축제 홍보의 주요 내용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발생했다는 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대한 효과가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전반적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문화교류의 장이되며, 지역주민의 여가기회를 확대하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적 자산으로 홍보의 콘텐츠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전반적인 축제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 축제·이벤트가 야외에서 개최되는 행사이고, 특히 바람이나 비, 당일의 교통상황 등과 같은 특정 외부변수로 인해 이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만족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날씨의 변화에 따른 축제 참가자들의 만족수준의 질적 차이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접근되고 있지는 않지만, 축제를 관리하는 민간 또는 공공조직에서 날씨 변수를 사전에 충분히 매해 기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 축제가 진행되는 순간 강풍이나 날씨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참가자들이 절적인 체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런 안 좋은 날씨를 대비한 대체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는 방법부터 날씨로 인한 안전이 위험한 상황인 경우 축제행사의 취소할 수 있도록 단계를 설정하여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치러지는 수십여 개의 지역축제 중에서 가장 예산규모가 크고 국내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행사인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대한 관광분야 이외의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제주지역의 축제·이벤트 중에서 기복 모티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강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이외 지역에서 참가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관광상품으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런 복합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를 토대로 이 축제·이벤트가 지역주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선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본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동완(2000). 관광영향의 인식이 지역사회 만족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35(4), pp.255-269.
- 고동우(1998). 선행관광행동연구의 비판적 고찰. 『관광학연구』, 22(1), pp.201-229.
- 고승익·오상운·고경실·조문수(2007). 지역주민의 지역축제평가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애착도, 지역축제 영향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4), pp.174-198.
-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03). 지역축제를 찾아서: 제주 북제주군정월대보름들불축제 사랑과 평화, 상생의 불꽃으로 타오르다, 52(592), pp.94-97.
- 류정아(2003). 『축제인류학』, 서울: 도서출판 살림.
- 문성종·김민철·부창산(2007). 제주 들불 축제 평가속성의 만족 및 지불의사 영향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7(3), pp.157-173.
- 부숙진(2009). 지역축제 개최주민의 축제효과요인 인식이 축제참여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태국파타야지역과 한국보령지역 비교연구, 『호텔관광연구』, 11(4), pp.185-202.
- 손해경·손대현(2008).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축제 참여동기와 만족에 관한 연구: 문경 한국전통차사발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0(1), pp.3-24.
- 이경모(2000). 이벤트학의 개념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10: 133-156.
- 이장주·조현상(2000). 지역축제의 이미지 특성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학연구』, 24(1), pp.205-224.
- 이정록·안종현(2004). 지역축제의 방문자 만족에 관한 연구: 곡성심청축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3), pp.503-518.
- 이후석(1999). 『관광개발론』, 서울: 백산출판사.
- 이후석·오민재(2006). 방문객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인식 차이: 이천도자기축제 방문객 유형별 분석, 『관광연구저널』, 29(2), pp.45-56.
- 이훈·D. Kerstetter(1997). 방문자들의 예술축제 경험과 평가분석: 지역주민 참가자와 관광지 비교연구. 『관광연구논총』, 9, pp.145-147.
- 장성수·양영근·고계성(2008). 축제방문객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관한 연구: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2(4), pp.373-387.

- 장양혜 · 김혜영(2007). 지역주민과 외지방문객의 축제 참여 동기와 만족, 충성도 비교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6), pp.724-737.
- 정강환 · 노용호(2004).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행사평가 연구. 『한국식물 · 인간 · 환경학회지』, 7(1), pp.11-20.
- 정명희(2003). 축제방문객이 지각한 도시축제의 사회문화적 영향: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15, pp.243-263.
- 정지원 · 김정훈(2005). 축제 참가자의 만족도와 축제의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여행학연구』, 23, pp.95-111.
- 정충영 · 최이규(2009). 『SPSS 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 조문식 · 최해수(2004). 충주 우륵문화축제 이미지와 축제효과 평가 연구, 『Tourism Research』, 19, pp.119-140.
- 조배행 · 박종진(2007). 지역축제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 차이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1), pp.68-81.
- 함석중 · 박선희(2009). 지역축제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관광연구저널』, 23(1), pp.191-206.
- 홍성화 · 최병길 · 이성은(2006). 국내 관광분야 축제 이벤트 연구논문 내용분석: 1995-2004년 연구경향과 분석방법 검토, 『관광학연구』, 30(6), pp.95-111.
- 홍수희(2003). 정동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 『관광 · 레저연구』, 15(2), pp.173-191.
- Janiskee, R. L.(1991). Rural Festivals in South Carolina,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 11(2), pp.31-43.
- Oliver, R.L.(1981). Measurement and education of satisfaction process in retailing setting, *Journal of Retailing*, 57(3), pp.25-48.
- Pizam, A.(1978). Tourism impact: the social costs to the destination community as perceived by its residen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16(4), pp.8-12.
- 제주일보, 2003년 3월2일
- 제주관광신문, 2010년 3월 1일
- 한라일보 2010년 3월 4일
- 제주환경운동연합, 2004년 2월 4일
- 연합뉴스 2009년 2월 10일
-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홈페이지(<http://www.buriburi.go.kr>)

Abstract

The effect of the participants' satisfaction of impact perception
about local festival and special event

: Focused on Jeju Jeongwol Daeboreum Fire Festival

Kim, Eui-Keun* · Kang, Sook-You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articipants' satisfaction of impact perception about Jeju Jeongwol Daeboreum Fire Festival and the perception difference toward of the local festival and special event. The festival impact consists of the positive factors such as promotion of local culture, local economy development, extension of leisure opportunity, and local publicity effect as well as the negative factor including damaging environment and traffic congestion.

A total of 350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in the place for three days from Feb.26 to Feb. 28 and 30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inally.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and t-test were used for analyzing the effect and the difference. As a results, five factors out of six factors executed as impact perception factor about local festival and special event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the festival and event.

Key Words

Festival and Special Event, Impact Perception of Tourism, Perception of Festival and Spacial Event, Festival. Satisfaction of Local Festival and Special Event.

*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Tamna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Hotel Management, Tamna University

제1저자 : 김의근 690-70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70번지
탐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E-mail : kek0539@hanmail.net 전화 : 064-735-2136)

교신저자 : 강숙영 690-70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70번지
탐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E-mail : sky7212@hanmail.net 전화 : 064-735-2135)

논문투고일 2010. 06. 30.

심사완료일 2010. 07. 30.

게재확정일 2010. 08. 10.